

# 최은호 시나리오

- 주제 : 반려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생물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싶었다.
- 시놉시스 : 홀로 떠돌아다니는 늙은 유기견의 모습을 할머니로 표현하여 반려동물의 감정을 나타내었다.
- 주인공
  1. 할머니 : 홀로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으로, 늙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다시 집으로 찾아가지만 냉대를 받고 쓸쓸히 눈을 감는다.
- 시나리오

"할머니"

S#1 (공원 벤치/낮)

홀로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뒷모습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있다.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본다.  
할머니에게 지나가는 여학생이 다가가려고하지만, 학생의 친구가 말린다.

"(할머니를 흘겨보며)야, 더러워. 가까이 가면 안돼"

친구의 말에 여학생이 할머니를 지켜보다 이내 발길을 돌린다.

할머니는 멀어지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걷는다.

### *S#2 (놀이터 벤치/오후)*

놀이터로 찾아온 할머니는 또다시 벤치에 앉는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이리저리 놀고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갑자기 할머니께 다가와 할머니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한다.

할머니는 아무 말없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피한다.

아이들도 그런 할머니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

### *S#3 (아파트 단지/오후)*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할머니는 한 아파트앞에가만히 서있다. 이리저리 둘러보시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크게 놀라는 할머니.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지만,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고 놀라면서 말한다.

"(할머니를 경멸하듯 쳐다보며)뭐야, 어떻게 온거야"

사람들이 자리에서 달아나자, 느리지만 허겁지겁 힘겹게  
걸어가던 할머니가 걸음을 멈춘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다 천천히 눈을 감는다.

#### S#4 (회상-골목/낮)

할머니를 골목에 두고가는 어느 한 남자.  
남자는 재빠르게 자동차에 몸을 싣고, 옆좌석에 있던 여자와  
유쾌한듯 대화를 하며 자동차를 출발시킨다.  
할머니는 자동차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발목에 묶인  
밧줄때문에 앞으로 가지를 못한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할머니.  
그러던 중 줄을 세계 당기자 줄이 끊기고 할머니는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자동차가 갔었던 길을 따라걷는다.

#### S#5 (병원/밤)

눈을 뜬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이리저리 할머니를 바라본다.

"오늘을 넘기긴 힘들겠네.."

의사의 훈жат말에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그 후 의사의 시점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건  
다름아닌 강아지의 모습이다.  
홀로 눈을 감는 강아지의 쓸쓸한 모습을 보인다.

